보험

Sector Issue Brief 2025. 12. 26

실손보험 정책기조: 점진적 긍정영향 전망

Check Point

- 26 년 실손보험료 7.8% 인상
- 관리급여 지정과 5 세대 실손 출시
- 실손 관련 정책기조는 점진적이나 긍정적 영향 전망

| Analyst **전배승** | bsjun@ls-sec.co.kr

26년 실손보험료 7.8% 인상. 4세대 손해율 안정화가 관건

▶ 26년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7.8%로 25년의 7.5%와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됨. 1~2세대는 3~5%, 3세대는 16%이며, 위험손해율이 150%에 달하는 4세대의 경우 인상률이 20%로 높게 나타남. 3세대를 제외하면 25년 중 실손 손해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며, 1세대와 2세대 인상률의 경우 업계 요구수준에 다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

▶ 실손보험료 인상에 따른 위험손해율 개선 영향은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기준으로 각각 2.3%p, 1.0%p 수준으로 추정. 위험보험료 증가분 만큼 예실차 개선이 가능하다고 단순 가정할 경우 양사의 세전이익은 3.8%, 1.6% 증가.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일부 긍정적 효과가 예상됨

▶ 손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4세대의 보험료 인상효과 가시화 여부가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. 손해율의 절대수준이 워낙 높은데다 신규판매 및 계약전환으로 전체 실손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 커지고 있기 때문('24년 기준 4세대 계약건수 +40%, 1~4세대 전체계약 대비 비중 15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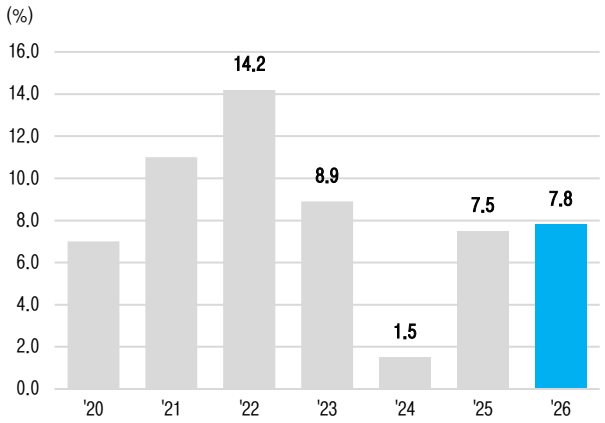
관리급여 지정 + 5세대 실손 출시: 점진적 긍정효과 전망

▶ 한편 최근 정부는 도수치료,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, 방사선 온열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. 도수치료의 경우 월평균 진료비가 1,200억원에 달하는 대표적 비급여 항목임. 관리급여로 지정 시 큰 폭의 수가하락이 예상되고, 26년 출시되는 5세대 실손의 경우 자기부담률이 건보의 본인부담률(95%) 수준으로 높아짐에 따라 남용우려 완화, 실손 보험금 지급액 감소가 예상됨

* (예시)
① 기존 비급여 도수치료 10만원 = 자기부담금 2만원(자기부담률 20%) + 실손보험금 8만원
② 신규 관리급여 도수치료 4만원 = 건보 0.2만원(본인부담률 95%) + 자기부담금 3.61만원(3.8만* 자기부담률 95%)
+ 실손보험금 0.19만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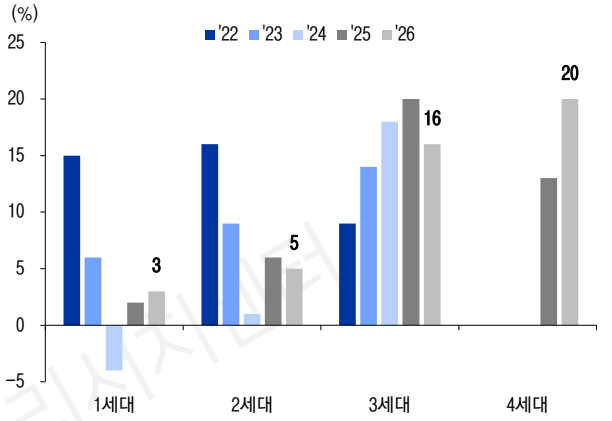
▶ 다만 이러한 효과는 4세대 출시 후 5년 재가입이 도래하는 2026년 7월부터 2036년까지 장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며, 전체 실손 가입자의 절반이 넘는 1세대와 초기 2세대의 경우 약관변경(재가입)이 불가해 계약재매입 등 추가조치가 필요. 또한 의료계의 강한 반발과 새로운 비급여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 차단 등 추가적인 해결과제가 상존

그림1 전체 실손보험료 조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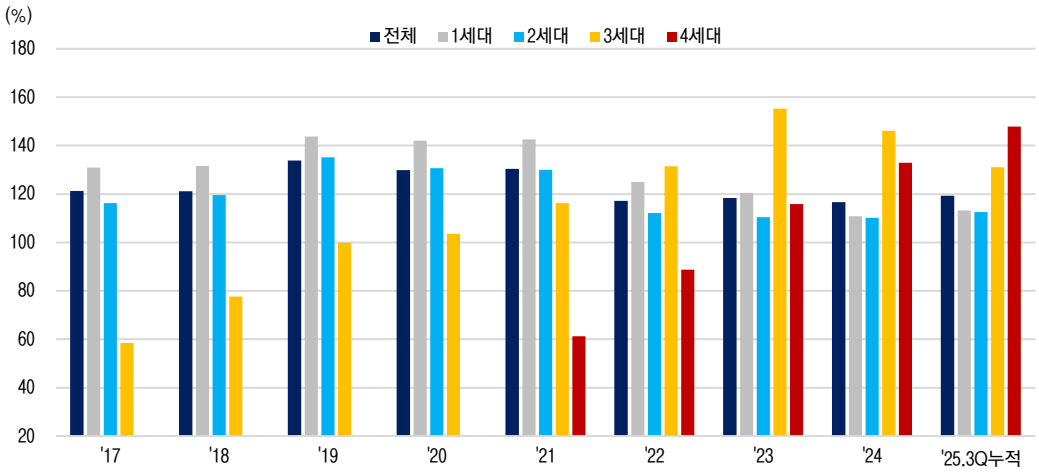
자료: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 세대별 실손보험료 조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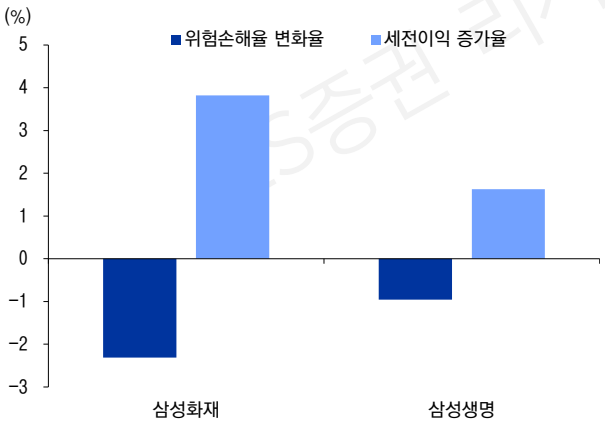
자료: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3 세대별 실손보험 손해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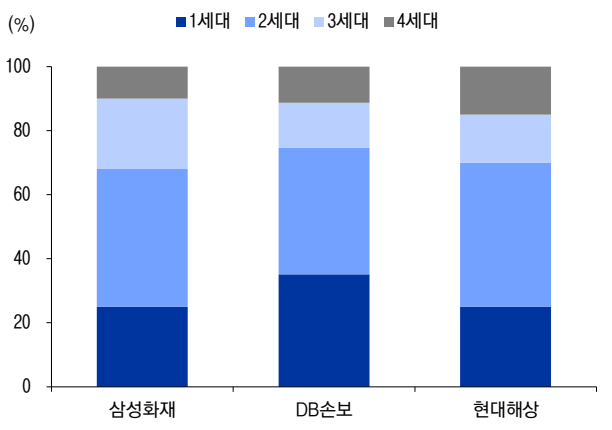
자료: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4 실손보험료 조정(+7.8%) 영향 추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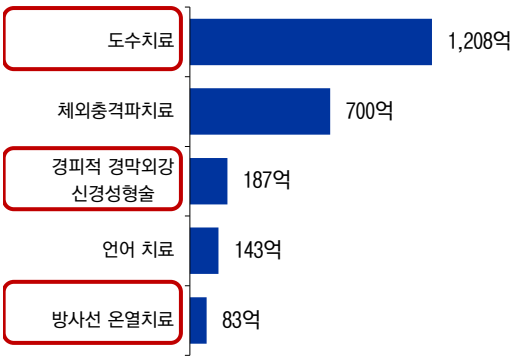
자료: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5 회사별 세대별 실손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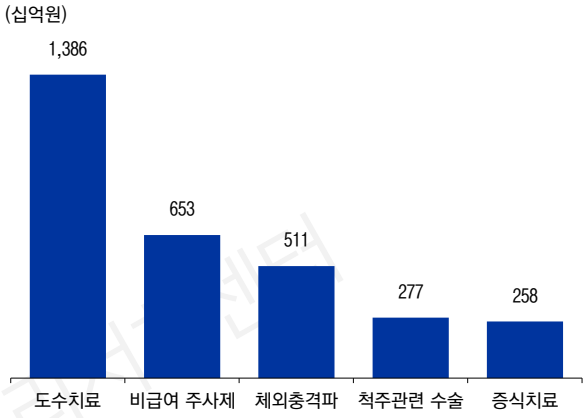
자료: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6 관리급여 지정후보와 지정항목의 월평균 진료비



자료: LS증권 리서치센터
주: 24년 3월 기준

그림7 실손보험금 지급액 상위 5 개



자료: LS증권 리서치센터
주: 24년 연간 기준

그림8 급여 및 비급여 관련 4 세대와 신규실손(5 세대) 비교

<급여 관련 현행 4세대와 신규실손 비교>

	현행(4세대)		신규상품	
	입원	외래	입원	외래
자기부담률	20%	Max[20%, 1/2만원[1)]]	20%	Max[**건보 본인부담률**[2)], 20%, 1/2만원[1)]]
임신·출산	보장대상 아님		**급여의료비 신규 보장**	

1) 병·의원+약국 : 1만원, 상급·종합+약국 : 2만원 / 2) 전체 의료행위 합산 비용(가중평균) 기준

<비급여 관련 현행 4세대와 신규실손 비교>

	현행(4세대)	신규상품	
		중증 (특약1)	비중증 (특약2)
보상한도	· 연간 5천만원 · 통원 회당 20만원 · 입원 한도 없음	· 좌동	· 연간 1천만원 · 통원 일당 20만원 · 입원(병·의원) 회당 300만원
자기부담률	· 입원 30% · 외래 Max[30%, 3만원]	· 좌동	· 입원 50% · 외래 Max[50%, 5만원]
자기부담 한도	· 없음	· **입원(상종·종병) 500만원 신설**	· 없음
보험금 미지급	· 미용·성형 등	· 좌동	· 좌동 + · 미등재 신의료기술 · 일부 비급여* * 도수·체외·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, 비급여 주사제 등
할인·할증제	· 이용량에 따라 할인·할증 (단, 중증질환 제외)	· 좌동(제외)	· 할인·할증 적용

자료: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9 **실손보험 세대별 현황**

구분	1세대 (舊실손)	2세대(표준화실손)			3세대(新실손)		4세대
		선택형Ⅰ	표준형	선택형Ⅱ	표준형	선택형Ⅱ	
판매 시기	~'09.9월	'09.10월 ~'15.8월	'13.1월 ~'17.3월	'15.9월 ~'17.3월	'17.4월~'21.6월		'21.7월~
자기 부담률	손보 0% 생보 20%	10%	20%	급여 10% 비급여 20%	20%	급여 10% 비급여 20%	주계약(급여) 20%
					특약 30%	특약 30%	특약(비급여) 30%
갱신	1~5년	3년	1년	1년	1년	1년	1년
재가입	없음	없음	15년	15년	15년	15년	5년
비중	**19.1%**	**38.9%**	**0.3%**	**6.1%**	**0.4%**	**22.7%**	**10.5%**

자료: LS증권 리서치센터

LS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전배승).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
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
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

구분	투자등급 guide line (투자기간 6~12 개월)	투자등급	적용기준 (향후 12 개월)	투자의견 비율	비고
Sector (업종)	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Overweight (비중확대) Neutral (중립) Underweight (비중축소)			
Company (기업)	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Buy (매수) Hold (보유) Sell (매도)	+15% 이상 기대 -15% ~ +15% -15% 이하 기대	89.4% 10.6%	2018 년 10 월 25 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±15%로 변경
		합계		100.0%	투자의견 비율은 2024. 10. 01 ~ 2025. 09.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(최근 1 년간 누적 기준. 분기별 갱신)